

몸의 신학

로버트 브롱스 (예수회)

이 강의는 몸에 관한 신학이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성의 신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한나 클라우스 박사의 부탁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금 시각이 오후 4시로 여러분이 벌써 장시간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강의의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강의가 우리 자신이 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명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는 성 윤리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성 윤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학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우리의 성에 대한 인식이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깊은 사랑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은 언제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하느님의 계명들의 근원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왜 기독교적 부부생활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사랑어린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성이라는 것에 그렇게도 밀접하고도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자연가족계획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기독교적 결혼의 의미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한 결혼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적 결혼의 의미와 결혼생활 안에서 혹은 그 결혼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님에게 응답해야 하는지 명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본능 중의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거나 누군가에 귀속되고자 하는 것, 즉 홀로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도 “사람(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 가장 의미심장한 탐구는 바로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언제나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방향은 그것이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어 왔으며, 각 국가의 정책과 인류 문화의 발전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해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있어 인간과 신의 합치는 대개 인간이 신에 흡수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간의 존재가 신 안에서 상실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의 문명은 이러한 인간적 합치를 인간이 창조한 어떤 실체, 즉 Marx의 계급적 사회주의나, Hitler식의 정치적 구세주에 대한 맹신, 아니면 아주 논리적인 과학적 유토피아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믿음이 인간의 선견지명이라는 현대적 믿음으로 대체되어 왔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자신의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또 인류의 타락과 부족함에 대한 기독교적 깨달음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인류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현대적 관념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 사고 지식, 그 중에도 특히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인 시조가 된 것이죠. 이런 관념을 표방하는 구호로는 ‘모든 것의 척도로서의 인간이라는 르네상스식 주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인류가 절망으로 빠져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에는 죽어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Groucho Marx의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질적인 특이함은 죄악으로 비추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질적인 차이라 함은 그 종류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크기나 정도의 차이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에 있어서의 차이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통일체에 아주 과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사회는 그 개별성에 대한 갖가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획일적인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회에 갖다 맞출 수 없는 어떤 특이함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그 사회의 문화에 비추어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것(대개의 경우 어떤 개별성)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차별화란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차이나 교육, 계급 간의 차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그 자체를 일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독특함을 표현해 주는 것은 바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각각은 육체적, 정신적,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하나의 독특한 개체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복제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별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설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만일 하느님께서 또 하나의 나 혹은 당신을 생산하려 하신다면 지금과 똑같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세계와 똑같은 역사를 가진 다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실 이유는 없겠지요.

우리의 독특함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유일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독특함이 인간의 영적 본성에만 기인한다거나 육체적인 본질로부터만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과 육체를 결합함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Joseph Flether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완전히 정신적인 어떤 존재는 아닙니다. 반대로 Carl Sagan의 논리에서처럼 분자구조에 의한 어떤 유기체로서의 육체적 측면만을 가진 존재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 모두들 포괄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물질적인 세상 역시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아의 단일성과 육체의 의미에 대한 현대적 접근방식은 물질적 세계의 지속적인 가치로부터 비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약의 단면으로는 성적 무분별, 자유주의, 음란산업, 동성애의 만연, 출산을 배제한 성적 결합, 결혼 서약의 당위성 및 그 의미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남성화 혹은 남성의 여성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개 아주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각각은 육체와 영혼의 독특한 하나의 결합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삶으로부터의 개인 및 개인적인 활동의 소외라는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문화는 우리가 아무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독립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오직 물질적인 고립, 즉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효과적으로 고립됨으로써만 우리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라든가 ‘희생자 없는 죄악,’ 또는 ‘성의 인간적 영역으로의 승화’ 등의 구호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구호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라고 확인시켜 주신 바 있는 육체적 실체의 단일성과 계속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독교는 어떤 질적인 차이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일련의 모든 창조물(빛, 바다와 땅, 새들 그리고 물고기 등)을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적인 차이란 기독교와 유대교 양자에 있어서는 ‘좋다’ 이상의 것으로서, 이 땅과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그리고 특히 당신 자신의 모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느님께서 즐거워하시던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느님 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확실히 유대인은 스스로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느님 계약 안에 표현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질적인 차이에 대한 확인은 Adam과 Eve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질적인 차이라는 것이 불공평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하느님의 창조 작업에 수반되었던 아름다움과 영광, 새로움 그리고 선함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 영광, 선함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의미조차 바로 질적인 다양함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질적인 다양함을 개인 혹은 사회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써 잘못 사용하면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일례로 남성은 어떤 현실적

차이를 이유로 남녀 간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위험이란 이렇게 실질적이며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위험보다도 만물을 서로 비슷하게 평준화시키려는 시도가 더욱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과의 궁극적인 일치는 필연적으로 인간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신성함으로의 자아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즉 우리 자신의 전인적 자아를 유지한 채 하느님의 영광 안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궁극적인 일치란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인격을 계속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혼’(The Great Divorce)이라는 저서에서 C.S Lewis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섞여버리는 수영장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가지를 뺀어 나가는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개인적 삶이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작은 시냇물처럼 어떤 획일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완전함을 향해 성숙해져 가고 또한 선한 자질을 증가시켜 나갈수록 각 개체는 다른 개체와는 다른 자신만의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선함은 악한 것으로부터 점점 더 차별화되어 나갈 것이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함은 다른 종류의 선함에서조차도 더욱 더 뚜렷하게 구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존재가 완전해질수록 그 존재는 더욱더 다른 존재와는 차별화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논리는 천사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각각의 천사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완벽한 존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논리는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느님과 같은 존재란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그 움직임이 빠르든 혹은 느리든 간에 선함에 대한 더욱 위대한 존재의 확인과 또 선함에 있어서의 더욱 심오한 개체 간 차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란 하느님의 손에서 완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변화와 성장을 허용치 않는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각각의 존재에 따라 자신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다른 존재와 결합하기 위해 각각 서로 다른 자신만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Adam과 Eve도 그러한 지름길을 찾았으며,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과 같이 천국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결합, 결합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오직 천국에 들어간 뒤에야 그러한 완전한 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합은 그 결합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을 완전하게 따른 것일 것이므로 ‘다양함 속의 단일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결합이 될 것입니다.

이 다양함 속의 단일함이란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한 결합의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육체로부터 파생되는 차별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바로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결합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은 당신 모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녀 간의 차이는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의 상을 마음에 그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녀 간의 차이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서로 같아질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질적 차이의 두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인종 간의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성이란 남성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인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인간으로서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의 방식만은 서로 같아질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유형을 각각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여성은 점진적으로 더욱더 남성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여성은 본질적으로 더욱 여성다워질 것이고 남성은 본질적으로 더욱 남성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우리 문명이 외치는 구호와는 달리 만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숙해지고자 한다면 남녀 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분명히 현대문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반문화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문명은 마치 남녀 간의 차이를 깨끗이 씻어 버리려고 작심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바꾸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성을 여성의 그늘에 두고 여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막심한 손실이 유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성다움, 여성적인 존재방식 또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이 여성일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것을 빼면 과연 여성이 남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성다움 말고 남성이 여성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스스로를 한 남성에게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남성이 여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남성다워질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남성다움을 받는 여성은 더욱 여성다워지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양함 속의 하나 됨이 발하는 영광과 광채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은 더욱 여성다워지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하는 바로 그러한 결합인 것이죠.

도대체 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나뉘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일 하느님께서 이런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택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면 하느님께서 굳이 양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에서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 주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또한 그분의 은총과 함께 그분과의 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무엇인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계가 하느님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한 가지의 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은 간단히 말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므로 그분에 대한 성의 구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나 모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에 대한 기도를 아버지에 대한 기도로서 하셨습니다. 이는 교리상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데에는 조금 난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시간 낭비라 하겠습니다. 하느님 자신이 스스로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며 당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요지를 잊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은 성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양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답하자면 인간의 양성이란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의 창조 작업이 당신의 모상에 따라 도안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인간이란 양성을 가지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성적 구별이란 삼위일체의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끊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게 된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성과 삼위일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관한 신비를 꿰뚫어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형상 안에서 창조된 삶의 한 모습으로서 인간의 성, 바로 이 문제를 이번 강의 제1단계의 주제로 삼고 지금부터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말하자면 당신의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의 불완전하고도 유한한 반영체인 수많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지셨습니다. 이를테면 개개의 모든 존재는 비록 유한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느님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수 있는 것이죠(실상에 대한 언어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홀로 떨어져 있고 또 언제나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존재 안에서 한 분의 하느님 안에 일체를 이루는 세 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다양함 속의 단일함의 모습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에 오직 다양함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삼위일체의 형상을 가려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창조물 속에서 오직 단일함(죽어버린 동일성)만을 찾아내게 된다면 그 경우 역시 삼위일체를 가려낼 수는 없겠지요. 또 만일 누군가(그것이 타인이든 하느님이든 간에)와의 결합이 그 상대방 혹은 하느님 안에서의 자기 자아의 상실로 이해된다면 그러한 결합에서는 다양함 역시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서는 유일하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분은 아니며 또 성부와 성령도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비란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령이란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어 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조물의 경우에 있어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은 두 존재가 스스로를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결합 안에서의 성령의 유한한 표현인 것입니다.

창조물의 유한성이란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니교의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죄악도 아니며 이른바 현대적 사고의 옹호론자가 가정하는 것처럼 현대사회에 대한 적합성이 없는 그런 논리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 광채, 선행 그리고 영광은 그것의 삼위일체적 특성을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포용하고 또 이를 확신하며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치의 평가가 성스러움을 통한 인간 성의 표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창조의 신비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근원적인 계약은 바로 당신 자신의 ‘육화’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개성을 갖게 하고 또 그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더불어 살게 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역시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 계약이 단순히 육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하느님의 계약이란 시초부터 결혼을 통한 혹은 결혼을 전제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느님 계약에 대한 말씀 중에 교황은 “...이 계약은 간단한 거래도 아니며 정치적인 동맹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 계약은 결혼이라는 증표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이란 주님께서 그것을 성스러운 위엄으로 높이 들어 올리시기 전부터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또 하느님에 대한 그 백성의 응답을 상징해 왔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은 남녀 간의 성적인 모든 표현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피에 의한 계약에 의하면 우리의 성적인 본능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성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있어 성은 두 남녀가 서로 성령을 주고받는 은혜로운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관계는 성체와 함께 기독교적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성스러운 특질을 기초로 하여 결혼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결혼이야말로 가톨릭적인 성 윤리의 유일한 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즉, 가톨릭적 성 도덕은 하나의 신비로서의 혼인 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혼인의 신비는 가톨릭적인 삶과 하느님에 대한 경배의 중심에 있는 성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러한 혼인관계를 성체와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해 보도록 합시다.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 계약의 성취 여부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하느님을 이 세상과 연관 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은총이 가득한 삼위 중에 두 번째 분이 그 일에 적합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 됨에 있어서 성부께서는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능한 가장 친밀한 형태의 결합으로의 하느님 초대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응답은 타락한 피조물에 대한 일종의 미봉책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성스러운 하느님의 의지에 의해 계획된 예수님 피에 의한 새로운 계약에 필수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성모 마리아 그 한 분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에 필요한 피가 우리 인류에게 온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애의 근원이며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애라 할 것이므로 성모 마리아는 우리 구원에 꼭 있어야만 하는 한 원천인 것이죠. 지금 제 말이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의 초대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응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중의 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으로부터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서 선택되신 분이며 새로운 계약의 실현은 전적으로 그분의 응답 여하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께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님이 새로운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육체는 하느님의 아들이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성모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때가 구원의 역사가 열린 때였던 것입니다. 성모께서 주님께 응답했던 바로 그 때가 구약성서에 의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또한 신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구원과 영광, 그리고 광휘가 우리 인류를 비추기 시작한 시기인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등 인류와의 사이에 행해졌던 하느님의 모든 계약은 성모의 예수님 잉태로 그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창조의 움직임과 구원 역사의 흐름이 모든 피조물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전에 한 젊은 여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응답을 숨을 죽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자유로움보다 더 큰 자유로움 속에서 성부에 대한 그 여인의 순명으로 인해 바로 그 시점에서 영원한 주님의 아드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가장 친밀한 계약적 관계, 즉 육체 안에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되셨으며 성모 마리아 안에 한 인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은 나자렛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셨으며, 우리 모두의 숙명 안에 함께 하게 되셨고, 우리와 같은 종류의 피조물이 되셨으며 인류와 혈육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과, 즉 그 안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생겨나고 우리 자신 모두도 육체를 부여받은 그 세상과 유대관계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간의 육체 안에 하나가 되는

결합은 구약성서에 있어서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계약, 즉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의 실현을 가져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이 구별되는 상태로의 인류의 창조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결혼은 그것의 상징이라는 원초적 계약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 세상으로 하느님의 육화라는 그분의 마지막 계약에 심장이 되고 그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서 완전히 신으로서의 남성(예수님)과 인간인 여성과의 결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은 하느님이 인간으로의 화신이라는 신비의 중심에 있으며 바로 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에 있어 결혼의 특질에 비취볼 때 인간의 성은 놀랄 일도 또 어떤 종류의 추문도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성모님의 완전하고도 타락하지 않은 경배와 하느님 뜻에 대한 확신은 바로 하느님을 인간으로서 잉태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부의 뜻에 대한 성모님의 응답, 즉 “당신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라는 그 응답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이루는 행위였으며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남성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느님의 뜻을 성모님께 전할 때 어떤 요구를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즉, “마리아, 이 일을 하겠소?”라는 형태가 아니라 “당신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오”라는 예언적 형태를 띠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구보다 더욱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동의가, 그리고 자신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제시된 계약에 응답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응답했던 것이죠. 이는 오직 여성만이 제시받을 수 있고 또 오직 여성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청약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하느님의 새로운 계약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성 바오로는 에페소서 5장에 말씀을 하셨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를 확인한 바 있음), 그 기초와 그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요구는 바로 성모님과 같이 남성에 대한 여성으로서 여성의 응답이라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응답은 하느님 계약에 있어서의 속죄양이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주님 피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합 안에서만 오직 대속을 위해 이 세상에 헌신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모님과의 완전한 결합과 또 교회와의 신비로운 결합에 대한 인식 없이 예수님께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오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그분의 이 세상에의 현신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 실체의 필연적이고도 근본적인 계약적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의 성모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하느님 계약을 위한 사건으로 여성(성모님)의 응답을 요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강림은 하느님과 피조물 간의 마지막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홀로 그리고 스스로 강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성(성모님)과의 육체 안에 하나 되는 결합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상호관계를 떠나서 존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모님은 서로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또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모님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다른 이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의 잉태가 성모님에게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느님 뜻을 따르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부의 뜻에 대한 성모님의 응답과 성자에 대한 확인은 교회의 하느님에 대한 경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결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성모님은 교회의 본보기이며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성모님은 육체 안에 하나 되는 계약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성모님은 처녀였고 또한 어머니였습니다. 따라서 두 분사이의 육체 안에 하나 되는 계약은 예수님께서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신하시는 신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성자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삼위일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혼인의 계약 안에서뿐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 보내지셨으며 교회라는 성스러운 공동체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 속죄양으로 삼으시려는 성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타락한 인류에 있어서 하느님과의 결합을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 이유는 교회의 중재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위해 성체라는 상징을 통하여 일어난 예수님의 강림은 우리가 하느님에게 밀착되어 있도록 해주는 성스러운 교회에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 Augustine의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체는 지속적으로 교회를 재창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체는 예수님과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의 혼인적 결합의 효과적인 상징입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서의 그리고 그 피조물을 향한 성체의 모습을 한 하느님의 실재에 의해 창조되는 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신비로운 결합은 근본적으로 혼인의 계약 안에서만 그리고 그에 의해서만 강화되는 것입니다.

혼인이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현존하는 결합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세를 위해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다음부터라면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이란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적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하는 성스러운 삶은 언제나 예수님과 교회의 결합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과 교회의 결합이란 성체로 인해 생성되는 것으로 바로 혼인에 의해 강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비는 하느님 창조사업에 있어서 구원과 계약을 위한 그분의 여러 활동의 심장부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하느님의 구원사업은 성스러운 그리고 계약에 의한 일련의 통합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으로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의 결합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결합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의 성에 있어서의 단 하나의 적절하고도 진정한 의미 혹은 의의는 바로 그 성스러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구원을 언젠가 갑자기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삼위일체의 모상을 따른 우리 인류의 모습을 통해야만 우리의 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과 육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 성의 성스러운 본질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적절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깊은 성찰이야말로 제가 희망하는 것의 시초임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의 성과 그 의미는 성 윤리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행위와 관계있는 계명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충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계명들은 다만 기독교적인 성적 행위나 또는 육체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설명해 보지요. 계명은 기독교적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경계를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공동체 안에 남아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한 이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지 못합니다. “너희는 간통하지 마라”는 계명에서 성모님의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말씀에 있는 그런 광휘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모상 안에 있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너희는 하지 마라”는 여러 계명의 근원이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 가득한 소망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너희는 하지 마라”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계명들에 대한 지식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랑의 표현이 그분 계명의 엄수라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명의 엄수란 다만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계명의 엄수란 사랑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중에 하나 되신 그분에 대한 진정어린 경배에서 가장 잘 나타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존재하도록 불러주신 그분의 모상에 충실히 따르려는 우리의 염원에서도 잘 나타나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사랑 그 자체 안에서 가장 잘 표현됨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의 성사로서, 그리고 하느님 경배를 위해 특히 우리에게 허락된 혼인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배우자와 또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즉, 스스로에 대한 축복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배우자 서로가

가진 것의 반씩만 부어 넣는 그런 결혼 생활은 실패할 것입니다. 가진 것 모두를 쏟아 넣는 그러한 결혼만이 성공할 수 있겠죠. 분명히 어려운 요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아마도 혼인의 신비에 대해 목상하는 생활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쉽고 적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